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자율관리어업 권역별 워크숍 본격 추진 전남권, 서해권 워크숍에 이어 6월 27일 통영에서 남해권 워크숍 개최



자율관리어업 전남권 워크숍이 5월 29~30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0여 명의 자율관리어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율관리어업 서해권 워크숍이 6월 11~12일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230여 명의 자율관리어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연합회 대화의 장 모습.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권역별 워크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권역별 워크숍은 지난 5월 29~30일과 6월 11~12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각각 전남권과 서해권 워크숍이 개최됐다.

전남권 워크숍은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를 비롯, 일선에서 자율관리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해권은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수산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를 비롯, 일선에서 자율관리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합동교육 형태로 실시됐다. 권역별 워크숍은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됐다. <관련기사 2면>

워크숍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정책 방향 및 육성사업 설명 △2018년 최우수공동체 홍보영상 및 성공사례 발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성공사례 특강 △리더십&소통&조직관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임원과 공동체 어업인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는데,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우선순위 부여, 모래채취 규제 강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수산업회는 이번 전남권, 서해권 워크숍에 이어 6월 27~28일에는 경남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남해권 워크숍, 7월 12일에는 제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제주권 워크숍을 개최해 자율관리어업 현장 어업인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진 한국자율관리연합회장 등 자율관리어업 법률안 조속 제정, 국회에 요청



이기진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오른쪽)과 이기만 통영시회장(왼쪽)이 5월 24일 통영의 정점식 국회의원실을 방문.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만을 위한 단독 법률안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계자들이 힘을 쏟고 있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이기진

회장은 5월 21일 국회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을 비롯, 경대수, 김성찬, 이양수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김호연 연합회 전 회장과 한국수산업회 권승배 컨설턴트 등이 함께 해 힘을 보탰다.

또 이 회장은 국회 방문에 이어 24일 통영의 정점식 의원실을 직접 방문, 자율관리어업이 다시금 희생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관련 법률안은 통영 지역구 의원인 이군현 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한국수산업회는 6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분쟁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자율조정협의회(총괄협의회)(위원장 김영규)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자율조정협의회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금년도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의 경우 신규 분쟁과제 미발굴로, 지난해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이월과제(부산 송정어촌계와 청사어촌계간 조업구역 분쟁)에 대한 조정방안 등을 마련했다.

고창 하전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 축제' 성황리 개최

바지락 제철을 맞아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5월 18~19일 양일간 '제2회 고창 바지락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하전마을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바지락 직거래 행사를 통해 준비한 바지락 8톤 가량을 판매했다. 하전자율관리공동체는 다양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손님을 맞이하는 등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바다정화 활동 및 수산자원 회복 활동

삼천포외줄낙시 공동체, 해안변 정화 활동



삼천포외줄낙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위원장 천기현)는 5월 31일 24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사천 관내 해안변 정화 활동을 벌였다. 삼천포외줄낙시 공동체는 주기적으로 해안 청소 및 폐어구 수거 등 바다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치어방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목포수협, 감성돔 13만미 방류 ... 바다 정화 활동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은 지난 6월 4일 목포 북항일대에서 수산종묘 방류행사와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실

시하는 희망의 바다만들기 운동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청룡 조합장을 비롯해 목포수협 임직원, 죽교 북항 대반 어촌계원, (사)한여련 목포수협 분회 등 목포수협 조합원 약 500여명이 참석해 감성돔 치어 13만여 마리를 북항에 방류했다. 또 북항지역 일대와 고하도지역 일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바다정화 활동을 펼쳤다.

보령수협, 무창포항 일대에 꽃게 45만미 방류



보령수협(조합장 최요한)은 지난 5월 30일 무창포항 일대에서 2019년 희망의 바다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해 꽃게 45만 마리를 방류했다.

보령수협은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위해 치어방류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창포항 및 남포죽도 일대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1.0cm 전후로 성장한 꽃게를 방류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소, 독도에 새우 30만미 방류



경상북도는 5월 31일 울릉군 도동소공원에서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

식'을 갖고 독도로 이동해 수산자원 연구소에서 생산한 독도새우(도화새우) 3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환동해지역본부장, 연안 5개 시군 해양관광 담당과장 등이 울릉군 독도주민숙소에서 경북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6월부터 대게·꽃게 등 5개 어종 금어기 시행



불법 포획한 대게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어 대상은 대게, 꽃게, 참홍어, 필담새우, 낙지이다. 금어 기간은 대게가 6월 1일~11월 30일,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이다.

어종과 지역에 따라 금어 기간이 다

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대게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일정 기간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한다.

꽃게는 수심 2~100m 모래와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이 금어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에 시행되는 금어기

대게	6월 1일~11월 30일	참홍어	6월 1일~7월 15일
꽃게	6월 21일~8월 20일 (서해5도 일부해역 7월 1일~8월 31일)	필담새우	6월 1일~8월 31일
낙지	6월 1일~6월 30일 (인천·전남·경기 6월 21일~7월 20일 / 충남 4월 1일~5월 31일 / 경남 6월 16일~7월 31일)		

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여객선 등에서 하는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

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율관리어업 전남권 워크숍 특강 요지

어촌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



최상덕 /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바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어업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어떤 단속으로도 불법어업은 근절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자율관리어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자율관리형어업 구축방안'이라는 홍보책자를 들고 전국의 어업인들을 만나러 다닐 때 한 말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촌마을에 자원관리형어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애썼다고,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관리어업은 불법어업과 이로 인한 어장질서 문란은 자원남획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어업인의 의식 개혁신동으로 시작됐다. 기존 정부주도의 규제형 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업인의 참여 및 결정에 의한 자율관리형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2001년 63개 공동체로 시작한 자율관리어업은 2018년 현재 1,100여 공동체로 늘었다. 참여 인원도 5,000여명에서 6

만6,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은 이같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실적 성장은 더딘 편이다. 공동체 결성 이후 활동이 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운영이 잘되는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리 운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되는 공동체는 위원장이 추진력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리더의 잦은 교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잘되는 공동체는 회계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소

득을 배분하고, 경쟁적 조업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어업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득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 요인은 이 같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공동체의 투명한 운영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서도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되는 공동체의 리더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노령화되고, 어촌마을에 신규인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기엔 무엇보다 회원 간 수평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특별기고

수산물 인터넷 판매, 한국수산회 '피쉬세일'이 도와드립니다

커지는 온라인/모바일 쇼핑 비중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 13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벌써 올해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1조 4,3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했다. 그 중 60% 넘게 차지하는 모바일쇼핑의 거래액은 19조 9,821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온라인/모바일 쇼핑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소비형태가 됐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거나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로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앞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쿠팡, G마켓, 마켓컬리 등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경쟁할 것이며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에 수산물을 다루는 수산업자 및 관계자들도 변화하는 추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산업계 어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09년 6만 9천호 → '17년 5만 2천호)하고 있으나 수산인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사용률은 '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 수의 감소에 반해 정보화 사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구조, 고령화, 전자상거래 활용 및 판매능력 부족 등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어업인 스스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축수산 분야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미비한 것은 생산자 및 가공·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마케팅 능력이 사업 전반에서 미흡함에 있다. 그럼에도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식품분야 전자상거래



김성만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장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인터넷 네트워크 발달,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결제수단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비롯, 영세 어가들이 손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기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고 있다.

수산물 온라인 판매의 시작 '피쉬세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포함한 일선 어가들의 온라인 판매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 판매 대행'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을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온라인 판매대행은 물론 쇼핑몰 상품등록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제작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

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추후 직접 온라인 판매 진행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네이버, G마켓, 옥션, 쿠팡 등 다수의 쇼핑몰에 상품 등록 및 관리, 상품 광고, 주문 취합, 고객 응대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어가(공동체) 대신 진행을 해주고 있으며 어가에서 직접 대형쇼핑몰에 입점판매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어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산물 온라인 판매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박리다매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지속적인 판매관리가 부담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대로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피쉬세일'을 이용한다면 치열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기회의 시장'으로 바뀌어 줄 것이다. 어가들도 이러한 온라인 수산물 시장 변화에 발 맞춰 준비한다면 애써 생산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컨설팅 문의 : 02-589-0633)

한국산 김, '5,000만 달러' 일본 수출 계약... 역대 최대규모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한일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 달러(한화 592억원)의 김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한국산 김이 5월 1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출품 물량이 모두 팔리면서 5,000만 달러(59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수출 상담회 사상 최대다. 지난해 대일(對日) 김 수출 금액(1,400억원)의 4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행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 단체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5년 129억원, 2016년 236억원, 2017년 434억원, 2018년 440억원으로 수출 계약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47개 참가업체가 출품한 물량 가운

데 99.8%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모두 판매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 물량은 마른 김 460만 속(김 100장 한 묶음)과 김 조제품 222만 속 등 총 682만 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 김 생산 업체들이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인 덕분"이라며 "최근 일본 내 김 생산이 감소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 전체수출액 5억2,500만달러(약 6,264억원) 중 22.5%(1억 1,800만달러)를 차지했다.

해수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유생 제거·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 지원



금년 여름 수온상승으로 해파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부는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그물에 가득 올라온 해파리 모습.

해양수산부가 수온 상승으로 연근해에 출현하는 유해생물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부유(浮游) 해파리 유생과 발생지역수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6~7월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유생들이 6월 중 성체로 증식하게 되면 7월 중·하순경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예방과 해수욕장 쓰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부터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사전예방을 위해 수산과학원·지자체·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해파리의 이동과 확산경로를 예측하고, 관측정보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해파리 신고) 등을 통해 어업인 및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 발생을 막는 방법으로 사전에 유생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해 인천·경기·경남 해역에 10억원의 해파리 유생(플립) 제거 사업도 지원한다.

8개 시도에서 해수욕장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전국 72곳에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 피해 발생 때는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 가 도와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수산’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경상남도 수협조합장협의회는 5월 11일 경남고성군거류체육공원에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수산’이라는 주제로 ‘제8회 수산인의 날 기념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수산인 한마음대

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정점식 국회의원, 백두현 고성군수, 방태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인 및 관계기관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남 수산 비전선포 세리머니는 ‘바다로 가는 발전의 기차’의 뜻으로 서부경남 KTX를 모티브로 한 기차모형 전달이 이뤄졌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고성군수협 최영림씨 등 34명이 해양수산부장관상, 경상남도지사상, 수협중앙회장상을 수여받았다.

강릉에서 제12회 한수연 전국대회 개최



제12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동현) 전국대회가 5월 14~16일 강원 강릉아레나에서 개최됐다.

‘꿈을 꾸는 바다에서 미래를 여는 수산업’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양수 국회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영규 한국수산업회장 등 수산업계의 주요 내외빈과 한수연 회원 1만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강릉아레나 경기장을 주무대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14일 한국수산업경영인 3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5일 개막식 및 학술행사, 16일 해양환경 개선 캠페인 등이 열렸다.

울산에서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 울산 미포조선 이전 부지에서 ‘바다와 함께 꾸는 꿈, 바다와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갖고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상징이벤트를 가졌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을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2019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6월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아쿠아포닉스관에서 자연순환방식으로 수경 재배하는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2019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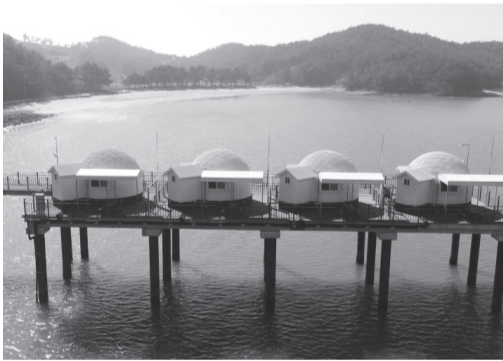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젊은 인재들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어촌, 활력바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공동체 탐방 / 태안 의항2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유류피해 보상문제로 갈등 ... 의항해상납시공원 등으로 재도약 추진



이충경 태안 의항2리 공동체위원장.



의항2리에 마련된 의항해상납시공원 전경.



기름범벅이던 의항2리 마을어장이 다시 살아나 굴양식 등이 재개되고 있다.



의항2리 어선들이 정박하는 개목항 전경.

“어휴, 1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서산·태안지역의 해안이 초토화될 당시, 단일 어촌마을로는 가장 피해가 컸던 의항2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이충경(49) 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돌굴(검정굴) 양식과 어선어업 등으로, 인근에서 부촌마을로 부러움을 사는 의항2리는 기름 사고로 한 순간에 마을어장을 잃은데다, 피해보상 문제로 어업인간 갈등을 겪으면서 아직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불과 수개월 전인 2007년 9월, 3톤짜리 어선을 새로 구입해 조업을 막 시작하던 이충경 위원장은 생각지도 못한 검은 재앙에도 실의에 빠질 틈이 없었다. 피해상황이 마스크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와 인간미를 만들어 모래와 자갈, 돌틈으로 스며든 기름을 닦아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어촌계장을 맡고 있던 그는 몰려드는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이를 취재하는 각종 마스크에 대응하느라 힘든 와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바다는 어업인만의 바다가 아니라

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10여년이 지금은 어장환경이 많이 변했다. 온통 굴밭이었던 어장은 비록 규모가 예전의 1/10정도로 크게 줄었지만 다시 굴 양식이 재개되고, 바지락과 해삼양식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마을어장에 투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해삼 자원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외부 해녀를 통해 해삼을 채취해 그대로 판매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면 1차 가공공장을 마련, 자숙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항2리는 지난해 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상낚시공원을 통

한 어업의 소득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이 들어오면 해상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물이 빠지면 갯바위낚시 또는 바지락과 굴을 따는 체험이 가능한 가족형 낚시공원이다. 태안군에서 시설을 마련해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아직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수익은 미미한 편이다.

“기름사고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을어장의 투석사업 이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이충경 위원장은 “올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면 의항2리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올린 마을로 기억될 것”이라며 사업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